

대만 불광산사  
개산 40주년

# 삼보일배로 초심 다진다



조산예불 행사에 참여한 타이중(台中)의 계명 학교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대만에 대승불교의 꽃을 만개시킨 불광산 개산 종장 상원 법사.



대만 남부 공업도시 가오슝에 위치한 불광산사 전경.



개산40주년을 맞아 불광산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산예불수지 행사. 사부대중 1만여명은 매주 3일씩 1년간 삼보일배를 하며 개산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 1년 한번 하던 조산예불 내년까지 매주 3일간 봉행 개산종장 상원 법사, “신심 높이는 최고 수행” 강조

‘부처님께 참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자(以朝聖淨化身心)’

대만 불광산사가 가오슝에 산문을 연 지 올해로 40주년. 신도 수 1백만명, 세계 각지에 200여개 분원, 170여개 국제불광협회 지부 등 ‘인간불교(人間佛敎)’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광산사가 1967년부터 이어온 개산(開山)의 초심을 다지기 위해 2007년 5월 16일까지 ‘조산예불수지(朝山禮佛修持)’를 봉행한다. 조산예불수지는 이른 새벽, 부처님을 직접 참배하기 위해 삼보일배로 산에 올라 불심을 닦는 의식. 매주 금요일부터 3일간 불이문에서부터 대웅전까지 1시간 넘게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시에 오체부지를 한다.

대만불교계 일간신문 ‘런지엔푸빠오(人間福報)’는 “매년 설날 무렵에 한 차례만 봉행했던 조산예불수지를 개산 40주년을 맞아 1년간 계속 개최한다”며 “불광산은 40년전 조산예불 행사를 시작으로 성장해 오늘날에 이른 만큼, 이 뜻 깊은 행사를 확

대·개최해 불광산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고 최고 보도했다.

개산종장 상원(聖雲) 법사는 특히 이 신문에서 “불광산은 조산예불 때문에 생겨났다”며 조산예불의 가치와 공덕을 강조했다. 이어 상원 법사는 “절은 비록 땅에서 하지만, 인격의 존엄성은 절로써 승화된다”며 “절은 부처님과 교류하고,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수행이 된다”고 개산 정신을 이 같이 설명했다.

불광산의 조산예불은 지난 1965년, 상원 법사가 가오슝의 수산사 불학원에서 조직한 ‘열불조산단’에서 시작된다. 인근 수산 공원에서 수산불학원까지 절을 하며 갖던 열불조산단은 당시 ‘산으로 산으로,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어. 조산예배로 불심과 하나 되니’란 수행 구호를 외치면서 삼보일배를 했다.

10월 27일 열린 조산예불행사에서는 남

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가했다.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조산예불에 동참한 용허(永和)의 청년단인 우명중(吳明仲) 부부는 “산을 오르며 불광산에 대해 이해하고 불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미국 달라스 불광국제협회에서 온 천원찬(陳文燦)씨와 왕바오링(王寶玲) 부부는 “처음 조산 수행사에 참가했을 때 삼보일배가 많이 힘들었지만, 왜 그런지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다 불법의 요요함이 아니겠느냐”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 타이중(台中)의 계명학교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조산 행사에 참여해 비록 육안은 멀어 볼 수 없지만, 심안으로 부처님과 제불보살의 자비를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만·이성미 통신문  
사진제공=불광산(佛光山) 인간사(人間社)

## 사원 건립 10주년 ‘국경일’ 선포 러 연방 칼미키아 공화국

러시아 연방의 불교국가 칼미키아 공화국이 ‘가던 슈드랍 초의홀링(Gaden Shedhorling) 불교사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했다고 티베트 인터넷 언론 ‘티베트넷(Tibet.net)’이 최근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10월 6일은 칼미키아 공화국의 대표적인 성지인 불교사원이 건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달라이 라마가 2004년 11월에 방문한 이 사원을 온 국민들이 성지로 여겨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칼미키아 공화국 키산 일림지호노프(Kirsan Ilimzhinov)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10년 전 사원이 건립된 것은 나라의 경사”라며 “장건 10주년을 맞아 사원 건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러시아 정교회, 이슬람 등 이웃 종교 지도자 등도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운전면허 요구한 스리랑카 스님들

지금이야 스님들의 자가용 소유와 운전이 그리 낯설지 않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을 하는 스님들을 보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최근 “스리랑카의 스님들이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 불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는 의구심과 흥미를 자아낸다.

10월 24일 스리랑카의 인터넷 언론 <콜롬보 페이지 뉴스 데스크(Colombo Page News Desk)>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을 거부당한 스님 두 분이 제기한 재판을 진행하는 항소법원에서 자동차 관련 정부 기관 책임자들

남아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계율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스님들에게 새로운 행위 규범이 요구될 때에도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스님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소소한 계율’을 위반한 경우이기 쉽다. 그런데 계율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스님들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의심이 되어도 어느 한 곳 확인을 해줄 곳이 없고 준거로 삼을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대중들이 스님들의 행동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스님들도 대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해 듣기로, 남방 상좌부 불교권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이것을 스님들이

## 종단 계율쫓, 자동차 운전 불허 고급차 소유 스님 많아 논란이 된 우리 현실에선 ‘뉴스 아닌 뉴스’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오늘날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스님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자동차법’ 제 127조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도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스님들은 또한 “정부의 불교 담당 부서(the Commissioner of Buddhist Affairs)가 이 문제에 대해 자동차 관련 기관에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동차 업무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대형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스님들이 많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뉴스가 우리 불교계에 전해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정리하는 ‘제1결집’에서 “소소한 계율까지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래, ‘계율’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에게 허용할지 말지” 종교성이나 각종 단의 계율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일단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모든 스님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스리랑카에서 스님들에게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운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 구조제도 받지 않은 사미·사미니까지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수천만 원이 넘는 고급 대형 승용차를 몇 대씩 소유한 스님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심지어 호화 요트를 가진 분들이 있고 골프장과 카지노 출입까지도 아무런 제약 없이 받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운전까지 제약을 받는 상좌부 스님들에 비해 신도들에게서 훨씬 더 큰 예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스리랑카 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어떻게 내리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승가의 계율을 연구하고 스님들의 소소한 행동까지도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 이곳에서 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 자유기고가

# 海印寺 高麗刻板 「사간판 인경본」 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 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들에게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 큰 관전인 범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렀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 각 「사간판 인경본」 10질 한정 보급!!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인진보감			
경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모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화역	4권	50만원		대문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대문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왕생칠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해인사)

구입문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